

# ‘당연’ 생활의문, ‘일상’

이와모토 미치야 (岩本通弥)

도쿄대학  
(번역: 김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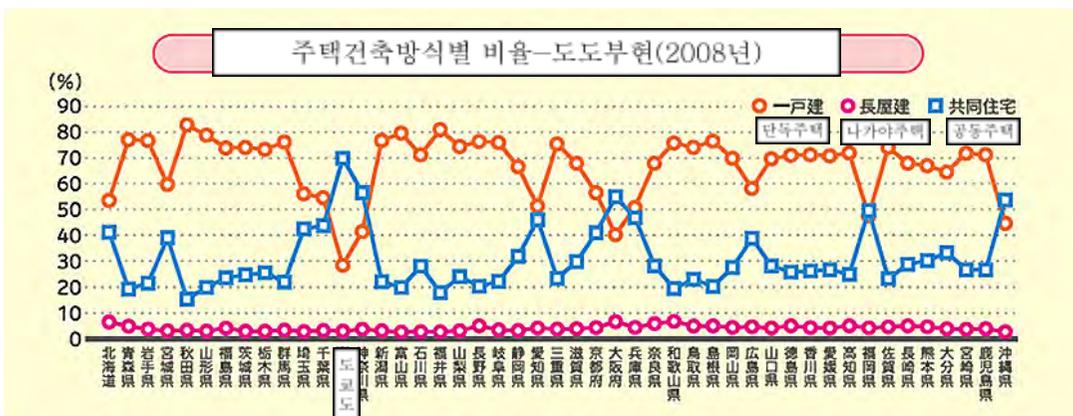
## 1. 평준화되어 가는 동아시아의 도시경관

먼저 이 심포지엄의 코디네이터로서 개최 취지와 전체 구성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에 일본·중국·한국이 공유하는 문제설정이라는 의미에서 공통된 대상을 정하고 이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과제를 설정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대상을 고층집합주택에서의 생활방식으로 정한 까닭은 우리에게 ‘당연’ 한 것이란 무엇인지를 묻기 위함에 있고 또 그 ‘생활세계’ 에 초점을 맞춘 것은 민속학의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재고해 보고자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당연’ 한 것이란 무엇일까? 나는 시타마치(下町)라 불리는 도쿄의 전통적인 동네에서 3 세대에 걸쳐 내려온 땅에 단독주택을 짓고 살고 있다. 도쿄에서는 언제부터인가 거주형태별(건축방식별) 주민구성에서 집합주택(공동주택) 세대가 70%에 이르게 되어(그림 1) 도쿄에서는 내가 소수에 해당되지만 사실 이를 좀처럼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아래의 사진 1 과 2 에서 볼 수 있듯이 예를 들어 우리집 주변에만도 요 10년 사이에 14~15층 높이의 고층맨션이 들어서서 거리의 경관은 격변했다. 고층맨션이 4 채의 단독주택(점포 겸 주택의 2층집에서 내화건축규제로 인해 3층집이 됨)을 빙 둘러싸고 있어서 겨우 십수 년전의 모습조차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까지는 목조모르타르 2층 건물이 즐지어 있었던 시타마치의 경관은 이제는 큰길에서만만 아니라 여염집이 모여있는 뒷골목에서조차 거의 사라지고 있다.

지난 2014년 7월 29일에 5년마다 실시되는 「2013년 주택·토지통계조사(속보집계결과)」가



(그림1) 각 도도부현(都道府県)의 주택건축방식별 비율  
[http://www.stat.go.jp/jyutaku\\_2013/about/ja/what/current-state.htm](http://www.stat.go.jp/jyutaku_2013/about/ja/what/current-state.htm)



(사진1) 고토구 기타스나 3초메



(사진2) 아리오 기타스나점

발표되었다. 여기에서도 일본의 주택건축방식을 보면 단독주택이 5년 전과 비교하여 115만 세대 늘어나 4.4% 증가하였고 전국적으로는 54.9%를 점한 반면(2008년에는 55.4%), 공동주택은 141세대(6.8%) 증가하여 42.4%로 늘어났고 특히 고층화의 현저한 진전이 그 경향으로 지적되었다.<sup>2</sup>

이러한 경관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집 비스듬한 앞쪽에 2010년 6월 초대형 슈퍼마켓(+쇼핑몰) ARIO(아리오 기타스나점)가 오픈했을 때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sup>3</sup> ARIO와 피트니스 클럽을 연결하는 육교 위에서 집 방향을 바라본 적이 있는데 이때 나는 어딘가로 순간이동한듯한 그리고 어디선가 본듯한 기시감에 사로잡혔다. 예전에 살았던 쓰쿠바(筑波) 연구학원도시 혹은 마치다(町田)인지, 아니면 견학하러 갔던 다마(多摩) 뉴타운 어딘가의 광경인지 요리조리 생각해봤지만 그 어디도 아니었다. 그리고 이 슈퍼마켓의 넓은 매장 ‘분위기’가 가져오는 감각적인 기억 [Lehmann 2010]이 1993년에 방문했던 한국 서울시 북동쪽 주변부에 위치한 상계동 주위의 고층아파트가 즐비하게 늘어진 재개발지역에서의 경험과 겹쳐진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한국인 가족과 함께 대량구매를 목적으로 차를 타고 갔었던 초대형 슈퍼에서 문득 떠오른 ‘근미래’라는 단어와 함께 그 때의 정경이 되살아났다. 근미래라는 단어는 약간 부적절할 수도 있겠으나, 어렸을 적 우주소년 아동을 볼 때와 같은 순간에 찾아왔던 어딘가 무국적적이고 무기질한 정경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ARIO에서 본 광경은 여태껏 경험했던 도시화나 근대화(modernization)와는 질적으로 상당히 다른, 지구 규모로 진행되는 거대한 구조변동 앞에 홀로 맞서고 있는 듯한 압박감과 전율, 동시에 고향을 잃어버린 듯한 적요한 ‘기분’에 사로잡힌 것이었다 [Lehmann 2010]. 이후 4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지금은 당시의 거부감은 없어지고 차츰 ‘당연’한 풍경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완전히 익숙해지진 못했다.<sup>4</sup>

## 2. 글로벌화(globalization)와 보통 사람들의 하루하루의 삶

만안지구(고토구)에 즐비하게 늘어난 타워 맨션군이 만들어내는 경관과 서울, 상하이(上海)의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나로서는 구분지어 말하기가 어렵고 국적없는 도시경관이라는 인상이 강하다. 경관만이 아니다. 지금 우리들의 생활은 여러 장면에서 전지구적인 규모로 전개되는 획일화의 다이내미즘(dynamism)이라는 소용돌이 속에 휩쓸려 가고 있다.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나 경제의 글로벌화, 고도정보화사회의 도래로 말미암아 예를 들어 획일적인 프로토콜로 연결된 인터넷이 만들어내는

네트워크의 동일화는 개별적인 지역이나 국경을 넘어서 지극히 유사한 변용을 (사람들의 생활세계에) 가져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모종의 ‘평준화’<sup>5</sup>가 진행되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앞에 둔 인간의 행동이라는 점에서 이제는 일본인도 한국인도, 나아가서는 정치체제의 차이를 넘어 중국인까지도 별반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과학기술의 진전이 일상생활의 세세한 부분까지 침투하여 전자미디어 네트워크가 전세계를 뒤덮으면서 사람, 물질, 정보의 대량적이고 신속한 이동이 가능해졌다. 1990년대 후반 이후 특히 지금 이 세기에 들어서 가속화된 글로벌화라는 일련의 움직임 속에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과 영위가 존재한다. 먼저 이를 직시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나는 지금까지 일본과 한국의 가족·친족현상의 차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해왔다.<sup>6</sup> 한일의 가족·친족을 둘러싼 상황은 처음 방한했던 1980년대 말과 비교해 제도나 사회시스템 등에서 매우 비슷해졌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인류학적 친족론에 의거해 비교연구를 해왔는데, 그 모범으로 삼아온 인류학자 시미즈 아키토시(清水昭俊)는 1998년에 다음과 같이 논한 바 있다.

“과거 서구국가들의 식민지와 같았던 비서구지역의 변화와 서구사회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는 구조적으로 연속되어 있다. 양쪽 모두 서구 기원의 정치, 사회, 문화제도가 지구 규모로 확대되는 운동의 일환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상황은 사회과학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하였다. “서구근대를 대상으로 삼아온 사회학은 “서구근대적인 이론을 장악함으로써 비서구사회에서 관찰되는 친족현상의 많은 부분들이 이전보다 훨씬 이해하기 쉬워졌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며 사회학 영역의 확장을 예견했었다 [시미즈 1998: 36 ~ 37].

저출산고령화(초고령사회)를 비롯해 가족의 원자(atom)화(친족적 유대의 약화와 개인화, 독거노인세대의 증가, 가족영역으로의 시장경제개입 등), 여성의 사회진출, 성별역할분업의 변화(남녀공동참여) 등과 이에 대응한 복지·사회보장제도의 정비 또한 확충되어 한일 간에 유사한 현상과 장면이 병행되어 나타나고 있다. 양국 모두에서 사회학·사회복지학 연구가 양적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질적으로도 정교하고 치밀해지고 있다. 여기에 흠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한편으로 일종의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이 또한 어딘가 무국적적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지역이나 나라 이름을 바꾸어 넣어도 통하는 상호교환이 가능한 일반이론을 지향하는 경향이 강한 것이다.<sup>7</sup> 한국에서도 민속학자는 사회학자보다 지역적인 다양성과 통시적인 변화과정에 주목하여 초점화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주 2007], 민속학은 일반법칙보다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찾고자 했다. 언뜻 보기에는 하찮은 보통 사람들의 하루하루의 실천을 흔한 물건이나 일어나는 사건, 평범한 행동이나 상호행위에 주목해서 그 구성단위를 관찰·기록·서술하는 수법을 민속학은 취해왔다. 특히 연행이론이 발전한 미국의 민속학은 민족지적인 기록이나 서술에서 눈에 띄게 진보하였고 이것이 학문적 특징을 이루어왔다 [고나가야·히라야마 2012]. 일상연구를 내세우는 독일 민속학도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의 민속학에서도 현실은 여전히 괴리되었다 하더라도 ‘당연’한 것에 착안하는 자세는 적어도 그 편린만큼은 살아있다.

글로벌화의 거대한 물결은 분명 우리들의 생활방식과 본연의 모습을 크게 규정짓는다. 하지만 그 한편에서 보통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흔하다 흔한 삶의 모습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온 민속학자들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실천이 쌓이고 쌓여 예를 들어 가까이에 있는 작은 문제의 해결에서부터 나아가서는 환경오염, 빈곤, 빈부격차의 문제 등과 같은 전지구적인 과제와도 조응하며 파급된다고 인식한다. 또 전지구적인 규모에서 진행되는 다이어미즘 속에서 획일적이고 평판화된 경관이나 삶에 수렴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차이의 관리’가 적절히 운용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무노스 2013]. 축적된

역사적 경험이나 상이한 경제·정치체제 등을 어떻게 활용해 왔으며 글로벌화를 어떻게 익숙한 것으로 길들여 가는지 그 일상화의 과정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보통 사람들의 일상소통적인 (vernacular) 실천 [Baumann 2008] 에 우리 민속학자들은 국가의 차이를 넘어서 관심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 3. 생활·범인(평민)·일상

민속학이란 무엇인가? 야나기타 구니오 (柳田國男) 는 『민간전승론』(1934) 에서 “사상(事象) 그 자체를 현상으로서 있는 그대로 응시하고 ‘알고 있다,’ ‘당연하다’ 고 설명되는 그 안의 진리를 통찰하는 것” [야나기타 1990:328] 이라고 정의하였다. 신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이고 흔한 일들 (=사상[事象]) 에 대한 착안과 이를 자명시하지 않고 깨닫는 것, “생활의문” [야나기타 1970:401 등] 을 품는 것이 스스로의 생활개선으로 이어지는 학문의 출발점이라 하였다. 이 때 생활외형 / 생활해설 / 생활의식이라는 3 부분류를 제시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핵심어는 바로 ‘생활’ 이었다. 같은 시대의 중국과 한국에서도 당시의 평민이나 범인<sup>8</sup> 의 현재 생활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이를 개량하는 것이 민속학의 목적이라 여겨졌다.

이 심포지엄에서 중국의 조우 싱 (周屋) 씨는 저우 쩌런이 주창한 민속학의 기저사상을 재조명하여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라는 물음이 민속학의 출발점이었음을 재확인하였다.<sup>9</sup> 한국에서는 내용의 반복<sup>10</sup> 을 피하기 위해 현대 독일민속학에서 핵심개념이 된 ‘일상(Alltag)’ 에 대해 민속학 개혁의 봉화를 올린 튀빙겐 대학에서 장기간 유학하였던 이상현 씨가 그 특징을 소묘해 주었다. 개혁의 이행 과정을 목격한 이상현 씨는 특히 일상연구를 주창한 예글레(Jeggler) 의 키빙겐 마을조사에 대해 상술하면서 그 선행연구로 헤르만 바우징거 등의 이주지역연구를 지적한다. 바우징거 등의 저작은 일본에서는 고노 신(河野眞) 씨에 의해 ‘새로운 이주단지’ 라는 이름으로 초역되었다 [바우징거 외 1991~93]. 이것은 적층형 집합주택은 아니지만 이주자만으로 구성된 지역에서 어떻게 페라인(Verein, 협회) 이나 집단이 조직되고 커뮤니티화되는지 또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나 일상생활이 주변의 재래지역과 비교해 무엇이 같고 어떻게 다른지 등을 1970 년대부터 명확히 밝힌 일상연구의 선구적 연구가 되었다.

아울러 여기서 ‘일상’ 을 내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정리해 두자면 다음과 같다. 일상화란 일상에 ‘화’ 를 덧붙여서 ‘당연한 것이 되는 것,’ ‘당연해지는 것’ 을 뜻하게 되는데, 이는 다양한 문화 이전(移轉), 오로지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새로운 문화요소가 그 생활세계에서 ‘당연’ 한 것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내포한 개념이라 할 수 있겠다. 규정된 코드만을 영유(領有) 할 수밖에 없는 보통 사람들의 생활실천은 그러한 기존 코드를 이용하여 새로운 환경을 창의적으로 궁리해내는 수동적 능동성을 발휘한다. 바우징거가 말한 “과학기술세계” 란 과학기술이 도구로서 일반화된 “생활세계” 를 일컫는데 자동차, 전화, 텔레비전, 컴퓨터, 스마트폰 등이 당연한 생활환경으로 변해가는 위상이며, 처음에는 그 이질성 때문에 위화감이나 거부감이 들었던 물건이나 일들이 언제부터인가 자명한 것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의 행동규범으로까지 발전하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개념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 [레만 2005:156-157, Gerndt 1997, Kaschuba 1989:181]. 가까이에 있는 비근한 일상생활의 자명성에 의문을 갖고 차이화해야만 비로소 자기세계는 객체화되고 대상화 가능한 것이 된다.

### 4. 고층집합주택이라는 장소의 설정

이번 심포지엄에서 고층집합주택이라는 장소를 설정한 이유는 동아시아 민속학에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연속성’이라는 관념을 잠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설계자에 의해 규격화된 공간이면서 지역에 전해져 내려온 문화전통이라는 단순한 설명은 통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문맥의 다층성에 입각한 현실을 응시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농업이 기간산업이었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속에서 도시의 근로자 가족이 생활하는 그릇으로 규정지어진 거주공간 안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상황’에 맞춰서 일상소통적인 문화를 창조해가는지, 유사한 ‘상황’을 놓고 다시금 ‘문화’에 의한 ‘구속성’<sup>11</sup>의 문제를 물어 밝혀보고자 한다.

글로벌화로 인한 평균화가 확대되는 속에서도 한중일 사이에 그 어떤 차이가 인정된다면 현재 사람들의 생활을 구속하고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보다 복잡한 역사적·사회적 전개의 산물로서 ‘문화’를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의 혼란 사실”을 서술하고자 했던 야나기타의 『명치대정사 세상편』은 근대(modernization)에 이르러 새로운 세대로 재편되어 갔던 생활의 체계적인 변천사=문화사의 시도였다고 필자는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을 자세히 설명” [야나기타 1993:6]<sup>12</sup> 하는 작업을 생략할 수밖에 없었던 이 책의 기술법은 후대 사람으로서 보자면 아쉽게도 현실상황 분석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겠다. 그 당시에는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자명성조차도 시시각각 불분명한 것으로 변해간다.

이와는 대극적인 방법을 고안한 것이 고현(考現)학(Modernologio)의 곤 와지로(今和次郎)이다. 민가조사의 선구자로 와세다(早稻田)대학 건축학과 교수였던 곤은 1925년 여름에 첫 고현학 조사 ‘도쿄 긴자거리 풍속기록’을 수행했다. 그리고 ‘하숙생의 소지품조사’(1925)와 ‘신가정의 물품조사’(1926) 등 방안에 있는 가재도구부터 자잘한 장신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소지품을 스케치와 함께 관찰·기록하였다. “보통 상식으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는 물건까지도 주의 깊은 태도로 기입”하고 “그 어떤 우연한 것도 놓치지 말고 모두 기입” [곤 1987:225]한 결과는 오늘날 귀중한 것이 되었다. 토론에서 야나기타의 세상사(世相史)에 관해서는 시게노부 유키히코(重信幸彦) 씨가, 곤 와지로의 조사법과 그 계보를 잇는 니시야마 우조(西山卯三)의 주거방식 조사 및 요시타케 야스미(吉武泰水)의 사용방식 조사 등에 대해서는 오쓰키 도시오(大月敏雄) 씨가 각각 소개하였다.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요하는 이 조사법은 그 중요성은 인식되면서도 좀처럼 실시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썩크탱크인 CDI가 상품과학연구소와 1975년부터 약 10년을 주기로 3번에 걸쳐 “생활재생태학”이라는 이름 아래 일본 가정이 보유하고 있는 생활재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수행하였다 [상품과학연구소+CDI 1980]. CDI의 조사는 1992년에 이르러 중지되었으나 2002년에 오사카(大阪)의 국립민족학박물관(이하, ‘오사카 민박’)이 한국의 고층아파트에 사는 가족의 생활을 거의 그대로 전시하는 ‘2002년 서울스타일: 이선생님댁의 살림살이를 있는 그대로’라는 특별전을 개최하였다.<sup>13</sup> 한국에서는 이 전시의 공동개최를 거치면서 서울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이 이를 조직적으로 인계받아 발전시켰고 ‘살림살이’ 조사라 명명하며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있음은 특필할 만하다.

토론자인 정수진 씨의 발표제목에서 살림살이를 처음에는 생활재생태학으로 번역하였는데, 일본어 표준어로 직역할 수 있는 적당한 단어가 없었다. 살림살이는 생활재나 가재도구와 같은 물질문화를 지칭함과 동시에 ‘살림살이가 좋다,’ ‘나쁘다’와 같이 쓰이면서 가세나 가계를 꾸린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내면적인 생활양식이나 삶의 방식까지 포함한 어휘인 것이다. 살림살이가 외재화하여 표현된 것이 일상생활이나 생활재 전체인 것이며 실존적인 ‘생활세계’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겠다.

## 5. 살림살이와 생활세계

파악하기 어려운 살림살이=생활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외재적인 생활재 모두를 기록하는 생활재생태학의 방법이 적용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 조사가 2005년에 충청북도 현 세종시의 농촌에서 이루어진 후 2006년부터는 ‘지역민속문화의 해’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3곳에서 살림살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19곳의 조사보고서가 국립민속박물관의 홈페이지에 아카이브화되어 공개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한글판 홈페이지에서만 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지만, 2020년에는 41개 지역 41가정의 살림살이 조사자료가 축적될 예정이라고 한다. 농어촌의 살림살이가 많았지만, 2007년부터는 도시민속지의 형태로 대도시 조사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고층집합주택의 경우 오사카 민박의 이씨 일가의 사례까지 포함시키면 3가지 사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울산의 아파트 사례는 다음 URL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http://efw.nfm.go.kr/service/book/salim/110/>

오사카 민박의 조사를 주도한 사토 고지 씨는 ‘사회의 이미지에서 개인의 현실(real)로’라는 표현을 통해 CDI에 의한 생활재생태학의 목표가 다수의 샘플링조사<sup>14</sup>에 기초하여 계층이나 지역에 따른 일본사회의 평균적인 이미지를 추출하는데 있었지만, 이미 세계는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계속해서 이행하고 있고 이러한 시점에서 ‘2002년 서울스타일’ 전시에서는 철저히 개인, 개성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그리고자 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 [사토 2002a:104~105].<sup>15</sup>

대표성과 전형성을 묻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도시계획이나 건축가들의 설계 비전이라는 큰 틀에 규정된 소여의 공간 속에서도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배열하고 스스로의 생활세계를 연출하고 있는지, 즉 “하나의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조각의 조합을 밝혀내는 것” [드 세르토 1987:12, 방점은 일본어 번역본 원문과 같음]을 통해 소비자라는 우회적인 이름이 주어지고 감추어진 피지배의 위치나 장소를 “헤테로토피아” [푸코 2013:36, 일본어로는 ‘異在郷’으로 번역]로 전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sup>16</sup>

당연한 것은 너무 자명하기에 평소에는 의문을 던지기 어렵다. 이것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에 자주 들었던, 잃어버린 후에야 ‘소중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 가까운 이웃나라의 유사한 일상이나 일상생활과 중첩시켜 보는 것은 스스로의 자명한 세계(world-taken-for-granted)에 ‘이화(異化)’의 시선을 드리우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깨닫게 된 ‘생활의문’을 차례로 등록하고 축적해가는 것 외에 지금 내게 좋은 지혜는 떠오르지 않는다. 생활재생태학이나 살림살이조사는 사토 씨의 조사에서는 총 40일, 살림살이 조사에는 2명의 조사원과 사진가 1명이 11개월이라는 방대한 시간과 노력, 비용이 투입되었다.<sup>17</sup> 같은 방법을 일본과 중국에서 시도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민간문학으로부터 발전하여 구술성(orality) 연구의 전개과정에서 독자적으로 주창된 중국의 ‘생활세계’ 연구를 비롯해 일본의 세상사(世相史) 연구, 생활개선운동 연구의 축적 [다나카 편 2011] 등 방법적으로도 동아시아의 민속학이 각각의 특성을 살피고 조합시켜 협업해 나감으로써 새로운 전술 또한 담겨질 것이다. 토론에서는 내리티브·구술을 통한 생활세계 연구에서 이미 많은 연구를 축적해온 중국의 가오 뵙중(高丙中) 씨와 후 샤오웨이(戶曉輝) 씨가 각각의 의견과 전망을 피력하였다.

특히 후 샤오웨이 씨는 생활세계와 일상세계를 엄밀히 변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이 두 가지를 혼동해서는 안 되며 생활세계는 에드문트 후설(Edmund Husserl)의 의미에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 사진3 ) 공급 중인 납골당



( 사진4 ) 사진으로 꾸며진 납골당

것이다. 현상태에서 한국의 살림살이 연구는 일상생활의 물질연구 범위에 머물러 있다고 해야겠지만, 정수진씨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연구가 지향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현상학적인 실존이해이다. 물질은 민속학적 지각에 있어 외면적인 실마리이자 그 기능과 생활사적 연관 속에서 개별적으로 관찰·파악되어야 한다 [Gerndt 1997:129]. 뿐만 아니라 추억이 담긴 관광지의 토산물 등에 대한 물건이야기 (モノ語り) [하시모토 2005] 나 이들을 꾸미고 포장하는 방법과 같은 일상소통적이고 조형적이며 창의적인 고안 등 민속학적 수법과 축적을 활용할 수 있는 국면은 넓게 펼쳐져 있다.



( 사진5 ) 고인과 함께 한 가족사진

## 6. 비교대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이번 심포지엄의 주요 과제에 대해 소개하겠다. 도쿄·서울·베이징의 고층집합주택의 전개와 생활에 대해서는 시노하라 사토코 (篠原聡子) 씨, 남근우 씨, 왕 지에원 (王傑文) 씨가 발표하였다. 서로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여 논점 또한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필자인 내 관점에 비추어 약간의 '생활의문' 을 접객 (손님접대) 공간과 방에 대해 제기해 보겠다.

시노하라 씨는 일본 집합주택의 공동현관 부분에 자동잠금장치가 도입되기 전과 후에 공용공간 설치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예전의 일본 가옥에는 엔가와 (縁側) 라 불리는 킷마루가 있었고 혼례나 장례식 때에는 이마 (居間) 라는 방과 불단이 놓여있는 부쓰마 (仏間) 라는 방을 개방하는 “타자에게 열린 집” [시노하라 2008:17] 이었다. 하지만 일본의 주택은 “특히 집합주택의 세대 (住戸) 라고 하는 밀실공간이 궁극적인 사적 영역에 속하게 되어 외부와의 접촉을 갖지 않는 것” [66] 으로 변화했으나 여기에 자동잠금장치가 도입됨으로써 세대 내에 있었던 일식방의 접객기능이 게스트룸이라는 형태로 공용공간으로 이전되었다고 한다. 집합주택에 설치된 철제문의 잠금장치로 인해 자유로운 외출이

가능한 안전한 주택형태가 되었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촉진시킨 요인으로 작용했음은 한국에서도 이미 분석된 바 있다 [전 2014:297]. 한국과 중국에서는 철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그곳에는 먼저 거실과 객청(客庁)이라 불리는 넓은 리빙룸이 있어서 대가족 등이 모일 수 있는 개방적이고 정돈된 공간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거실을 둘러싼 형태로 각 방이 배치되어 있는데,<sup>18</sup> 제사 등과 같은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의 접객 기능을 지금까지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일본처럼 이마에 물건이 넘쳐나지 않기 때문이며 또 남근우 씨가 지적한 것처럼 소파가 있어도 온돌바닥에 앉는 좌식생활이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식탁(다이닝 테이블)이 도입된 이후 다타미(畳)도 줄어들어 바닥에서 의자에 앉는 좌식생활로 일상적 행동거지의 대부분이 바뀌어버린 일본과는 크게 대조적인 점이라 할 수 있겠다.

살림살이 아카이브에 수록된 한국의 집안을 연출하는 가족사진들을 보더라도 그 사진들 중에 고인의 유영은 찾아보기 어려운데, 여기서는 고인의 사진을 상시 걸어두거나 놓아두지 않는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평소에는 창고나 장롱에 보관하는 유영은 제사 때에만 방안에 놓이게 된다. 사람이 죽으면 고인 개인의 침구<sup>19</sup>를 폐기하는 관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완물상지’(쓸 데 없는 물건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본래의 의지를 잃어버리는 일)<sup>20</sup>의 의식도 작용해서인지 현대 한국의 집에는 결혼식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사진은 장식해도 고인의 사진은 배제되어서 집은 ‘산자의 공간’으로만 존재한다고 일본인인 내 눈에는 비친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화장이 급속히 진행되어 납골당 형태의 묘지가 늘어났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진 3·4·5에서 볼 수 있듯이 고인과 함께한 가족사진으로 점차 장식되면서 산자와 죽은자 사이의 공간분리는 한층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사십구제까지는 거실의 한 곳에 유영을 모시고 고인에게도 음식을 올리지만 이 때가 지나면 유영은 치워지게 된다. 애착의 마음에서 사진을 그대로 모셔두었다가 찾아온 친척이나 지인들로부터 주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들은 적이 있다.

한편, 일본의 독거노인 등의 집에서는 거실을 장식하는 배우자의 유영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진 광경을 때때로 목격하게 된다. 제단처럼 고인의 사진을 모셔두고 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겉에서 드리는 공양(手元供養)’이나 ‘자택공양(自宅供養)’이라 하여 유골이나 재를 집에 보관하거나 펜던트로 만드는 등 위령의 장소를 가까운 곳에 두는 현상도 늘어나고 있다. 사십구제에 절(묘지)에 안치할 때까지 화장한 유골을 일단 집에 모시는 풍습도 토장(매장) 위주였던 근세시대에는 없었고 도쿄(東京)라는 근대도시의 생활세대 속에서 생성된 것이었는데, 산자와 죽은자의 경계구분이 모호해져 가고 있다. 모리 겐지(森謙二)는 2004~5년 무렵부터 가족의 사체를 매장하지 않고 자택에 방치해두는 사체방치사건이 빈발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모리 2014:44]. 매장이라는 합의가 무너져버린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돈이 없어서 장례를 치를 수 없었다’든지 아들이나 친척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연락하지 않았다’와 같은 이유가 있다고 설명된다. 하지만 주변 지인들과의 접촉을 스스로 끊어버린 자기방임자(self-neglector)로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체력적으로도 주변을 치를 수 없어서 쓰레기집으로 변해버린 난잡한 ‘일상’과 ‘생활의식’<sup>21</sup>이라는 점에서 연속성을 찾을 수 있음은 분명하다.

사소한 비교대조일지라도 ‘생활의문’을 쌓아감으로써 스스로의 생활세계의 자명성이라는 질곡에서 벗어나야만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일본어)

朝倉敏夫·林史樹·金香來編 2003 『国立民族学博物館調査報告』44(2002年ソウルスタイル研究と展示の評価)国立民族学

- 博物館[아사쿠라 도시오·하야시 후미키·김향래 편. 2003. 『국립민족학박물관조사보고44 2002년 서울스타일: 연구와 전시의 평가』. 국립민족학박물관].
- 有賀喜左衛門 1969「名子の賦役、その他」『有賀喜左衛門著作集』Ⅷ、未來社[아루가 기자에몬. 1969. “농노의 부역, 외.” 『아루가 기자에몬 저작집』Ⅷ. 미래사].
- 伊藤徳也 2012「『生活の芸術』と周作人—中国のデカダンス=モダニティ』 勉誠出版[이토 노리아. 2012. 『생활예술』과 저우 쉐런: 중국의 데카당스=모더니티』. 면성출판].
- 岩本通弥 1993「〈親子心中〉をめぐる象徴的システムの日韓比較(1)—神話的な語りとしての『自殺事件』の民俗学的分析」『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54集, 国立歴史民俗博物館[이와모토 미치야. 1993. “‘친자동반자살’을 둘러싼 상징적 시스템의 한일비교(1): 신화적인 구술로서의 ‘자살사건’에 관한 민속학적 분석.” 『국립역사민속박물관연구보고』54. 국립역사민속박물관].
- \_\_\_\_\_ 2006「親子心中の日韓比較に関する歴史民俗学的研究—民俗文化と近代家族の変容過程」『訪韓学術研究者論文集』6, 日韓文化交流基金[2006. “친자동반자살의 한일비교에 관한 역사민속학적 연구: 민속문화와 근대가족의 변용과정.” 『방한학술연구자논문집』6. 일한문화교류기금].
- \_\_\_\_\_ 2013「解説/解題 グリンデル高層住宅: 団地暮らしの映像民族誌的接近」マイケ・ミュラー『グリンデル高層住宅: 団地暮らしの映像民族誌的接近』日本語版DVD、東京大学大学院総合文化研究科[2013. “해설/해제 그린델 고층주택: 단지생활의 영상민족지적 접근.” 마이케 몰러(Maike Möller) 제작. 일본어판 DVD 『그린델 고층주택: 단지생활의 영상민족지적 접근』. 도쿄대학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 大月敏雄 2014「近居の意義」「近居の広がりを捕捉する」大月敏雄+住総研編『近居—少子高齢社会の住まい・地域再生にどう活かすか』学芸出版社[오쓰키 도시오. 2014. “근거의 의미,” “근거 전개의 파악.” 오쓰키 도시오·주총연 편. 『근거: 저출산고령사회의 주거·지역재생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학예출판사].
- 岸政彦 2014『街の人生』 勁草書房[기시 마사시코. 2014. 『거리의 인생』. 경조서방].
- 江東区 2009『江東区マンション実態調査(概要版)』江東区都市整備部[고토구. 2009. 『고토구 맨션 실태조사(개요판)』. 고토구 도시정비부].
- 国立民族学博物館編 2002「2002年ソウルスタイル—李さん一家の素顔の暮らし」千里文化財団(2002年3月21日～7月16日、韓日共同開催の特別展解説書)[국립민족학박물관 편. 2002. 『2002년 서울스타일: 이선생님댁 가족의 있는 그대로의 생활』. 천리문화재단(2002년3월21일～7월16일, 한일공동개최 특별전 해설서)].
- 小長谷英代・平山美雪編訳 2012『アメリカ民俗学—歴史と方法の批判的考察』岩田書院[고나가야 히데요·히라야마 미유키 편역. 2012. 『미국민속학: 역사와 방법의 비판적 고찰』. 암전서원].
- 小林秀樹 2013『居場所としての住まい—ナワバリ学が解き明かす家族と住まいの深層』新曜社[고바야시 히데키. 2013. 『거처로서의 주거: 세력권학으로 풀이하는 가족과 주거의 심층』. 신요사].
- 今和次郎 1987『考現学入門』ちくま文庫、筑摩書房[곤 와지로. 1987. 『고현학입문』. (치쿠마 문고)치쿠마 서방].
- 佐藤浩司 2002a 「生活財調査—ものはなにををかたる」国立民族学博物館編『2002年ソウルスタイル—李さん一家の素顔の暮らし』千里文化財団(2002年3月21日～7月16日、韓日共同開催の特別展解説書)[사토 고지. 2002a. “생활재조사: 물건은 무엇을 말하는가.” 국립민족학박물관 편. 『2002년 서울스타일: 이선생님댁 가족의 있는 그대로의 생활』. 천리문화재단(2002년3월21일～7월16일, 한일공동개최 특별전 해설서)].
- \_\_\_\_\_ 2002b「モノ調べ」佐藤浩司・山下里加(建築・都市ワークショップ+石黒知子編)『2002年ソウルスタイルその後—李さん一家の3200点: 普通の生活』INAX出版 [2002b. “물건조사.” 사토 고지·야마시타 리카(건축·도시워크샵·이시구로 도모코 편) 『2002년 서울스타일 그 이후(이선생님댁 가족의 3200점): 보통의 생활』. INAX출판].

- 篠原聡子 2008 『住まいの境界を読む—人・場所・建築のフィールドノート(新版)』 彰国社[시노하라 사토코, 2008. 『주거의 경계를 읽다: 사람·장소·건축의 필드워크(신판)』. 창국사].
- 清水昭俊 1998 「親族現象と人類学」 丸山茂・橘川俊忠・小馬徹編 『家族のオートノミー』 早稲田大学出版部[시미즈 아키토시, 1998. “친족현상과 인류학.” 마루야마 시게루·기쓰카와 도시타다·곤마 도루 편. 『가족의 자치』. 와세다대학출판부].
- 商品科学研究所+CDI 1980 『生活財生態学—現代家庭のモノとひと』 リプロポート[상품과학연구소·CDI, 1980. 『생활재생태학: 현대가족의 물건과 사람』. 리브로포트].
- 総務省統計局 2014 『平成25年住宅・土地統計調査(速報集計)結果の概要』 [총무성 통계국, 2014. 『2013년 주택·토지통계조사(속보집계결과)의 개요』. [http://www.stat.go.jp/data/jyutaku/2013/10\\_2.htm](http://www.stat.go.jp/data/jyutaku/2013/10_2.htm) (검색일: 2014.08.25)].
- 田中宣一編 2011 『暮らしの革命—戦後農村の生活改善事業と新生活運動』 農山漁村文化協会[다나카 센이치, 2011. 『생활혁명: 전후 농촌의 생활개선사업과 신생활운동』. 농산어촌문화협회].
- ド・セルト, ミシェル 1987 『日常実践のポイエティック』 国文社(山田登世子訳)[미셀 드 세르토, 1987. 『일상적 실천의 포이에틱』. 국문사(야마다 도요코 역)].
- ノイズ, ドロシー 2011 「伝統のプロセスにおける拘束性と自由」 『現代民俗学研究』 3号(小長谷英代・平山美雪訳)[도로지 노이즈, 2011. “전통의 과정에서의 구속성과 자유.” 『현대민속학연구』 3(고나가야 히데요·히라야마 미유키 역)].
- 橋本和也 2011 『観光経験の人類学—みやげものとガイドの「ものがたり」をめぐって』 世界思想社[하시모토 가즈야, 2011. 『관광경험의 인류학: 토산물과 가이드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세계사상사].
- バウジンガー, ヘルマン/ブラウン, マルクス/シュヴェート, ヘルベルト 1991~3 「新しい移住団地—東ヨーロッパからのドイツ人引揚民等の西ドイツ社会への定着にかんするルートヴィヒ・ウーラント研究所による民俗学・社会学調査(1)~(4)」 『愛知大学国際問題研究紀要』 94, 96, 98, 99号[헤르만 바우징거·마르크스 브라운·헤르베르트 슈베트, 1991~3. “새로운 이주단지: 동유럽에서 온 귀환자들의 서독사회에의 정착에 관한 루트비히 울란트 연구소에 의한 민속학·사회학조사(1)~(4).” 『아이치대학 국제문제연구소 기요』 94, 96, 98, 99].
- バウジンガー, ヘルマン 2005 『科学技術世界のなかの民俗文化』 文樹堂(河野眞訳)[헤르만 바우징거, 2005. 『과학기술세계 속의 민속문화』. 문집당(고노 신 역)].
- フーコー, ミシェル 2013 『ユートピア的的身体/ヘテロトピア』 水声社(佐藤嘉幸訳)[미셸 푸코, 2013. 『유토피아적 신체/헤테로토피아』. 수성사(사토 요시유키 역)].

## (한국어)

- 강권용, 2008. “국립민속박물관의 지역 생활재 조사의 현황과 과제.” 2008한국민속학자대회발표집(2008.10.30~31). 『민속학과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국립민속박물관.
- 국립민속박물관, 2008. 『오목이네 살림살이: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내창마을』.   
URL: <http://efw.nfm.go.kr/service/book/salim/69/> (검색일: 2014.08.25).   
EBook: <http://efw.nfm.go.kr/ebook/ecatalog.jsp?Dir=15> (검색일: 상동).
- 국립민속박물관, 2010. 도시민속조사보고서06. 『울산 달동 유정수 박은경 가족의 살림살이』.   
URL: <http://efw.nfm.go.kr/service/book/salim/110/> (검색일: 2014.08.25)   
EBook: <http://efw.nfm.go.kr/ebook/ecatalog.jsp?Dir=82> (검색일: 상동).
- 남근우, 2013. “민속 개념 재고.” 『실천민속학연구』 21. 실천민속학회.
- 전남일, 2014. “왜 아파트 인생이 되었는가?” 『아파트 인생』. 서울역사박물관.

주영하. 2007. “두 가지의 민속학과 의식주 연구: 한복·한식·한옥에서 복식·음식·주거로.” 『민속학연구』 20. 국립민속박물관.

## (영어 및 독일어)

Baumann, Richard. 2008. “The Philology of the Vernacular.” *Journal of Folklore Research* 45, no. 1.

Gerndt, Helge. 1997. *Studienskript Volkskunde*. Waxmann.

Kaschuba, Wolfgang. 1989. “Popular Culture and Workers’ Culture as Symbolic Orders: Comments on the Debate about the History of Culture and Everyday Life.” Edited by Lüdtkke, Alf. Translated by Templer, W. *The History of Everyday Life: Reconstructing Historical Experiences and Ways of Life*. Princeton University Press.

Lehmann, Albrecht. 2010. “Stimmungen und Atmosphären: Ihre Wirkung auf das Erinnern und Erzählen im Kontext einer Bewusstseinsanalyse.” (일본어역 제목: “기본과 분위기: 의식분석의 문맥에서 기억과 구술에 미치는 영향 [気分と雰囲気—意識分析のコンテキストにおける記憶と語り—to及ぼす影響].” 관서학원대학 심포지엄 『‘구술’연구의 최전선: 일상·경험·의식을 둘러싼 방법』, 2010.09.26).

Miller, Daniel ed. 1998. *Material Cultures: Why some things matter*.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öller, Maike. 2009. *DIE GRINDELHOCHHÄUSER*.

Ein Film von Maike Mölle: <http://www.grindelfilm.de/index.html> (검색일: 2014.08.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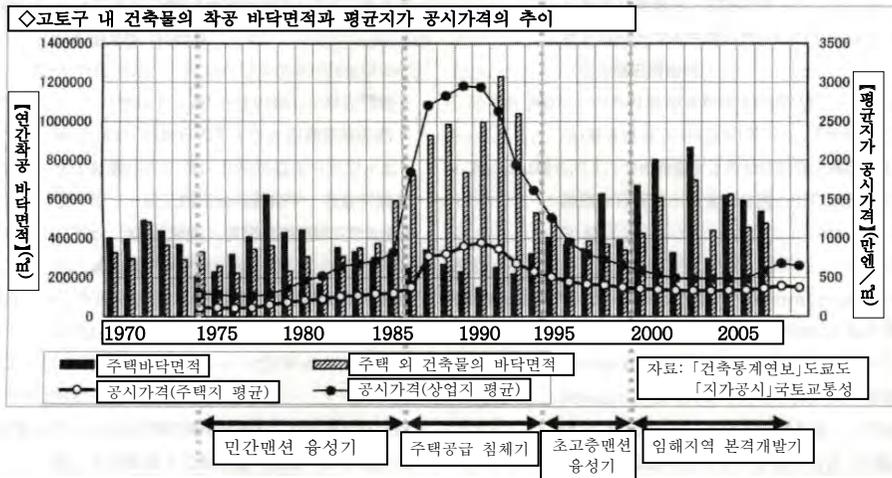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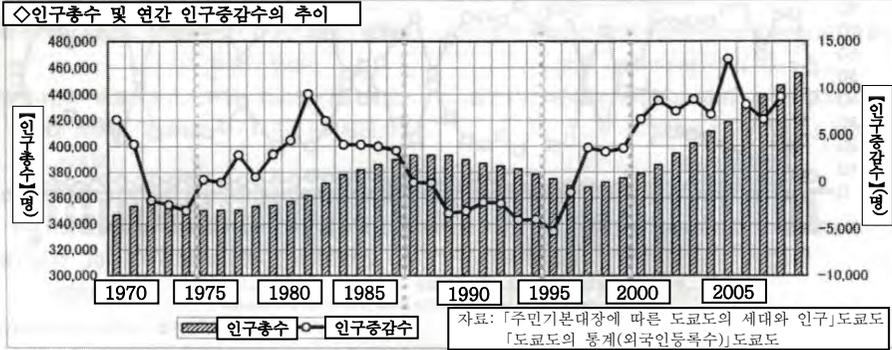
## 注

- 1 초등학교 3학년 향토학습에 쓰이는 사회과 부록본 『우리들의 고토구(わたしたちの江東区)』(고토구 교육위원회) 중 1956년에 태어난 필자가 사용했던 1964년판에서 고토구는 “큰 공장이 많은 고장”이라고 기술되었다. 1965년생인 동생이 사용한 1973년판에서는 “큰 주택지가 많은”이라고 바뀌어 있었다. 큰 공장부지에 1970년도 전후부터 공단이나 도쿄도(東京都)가 운영하는 주택단지가 다수 건설되었다는 것은 1973년 당시부터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중소 규모의 민간 맨션이 차츰 증가하여 단독주택보다 많아졌다는 사실은 실감할 수 없었다.
- 2 2008년에 비해 “1·2층건물”은 3.2%, “3~5층건물”은 1.5%, “6층이상건물”은 16.3% 각각 증가하여 “6층이상건물”이 공동주택 전체증가를 6.8%를 크게 웃돌고 있다. “6층이상건물”의 내역을 살펴보면 “11층이상건물”이 22.8%, “15층이상건물”은 47.5% 각각 증가하여 층수가 높아질수록 증가율도 높아지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고층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현저히 보여주고 있다” [총무성통계국 2014].
- 3 소부(総武)본선 옛추지마(越中島)지선 일본화물철도(JR 화물)의 오나기가와(小名木川) 화물역이 업무용 스미다가와(隅田川)역에 이관하면서 재개발되었다. 이토요카도(イトヨーカード)와 119개의 전용상점가 건물(제2구역), 피트니스 클럽(제1구역)을 합친 연면적 약 12만㎡에 이르는 대형상업시설을 기적으로 하여 남쪽 제3구역에는 4개동의 고층 맨션군(도쿄 스위트 레지던스)과 개호노인보건의료(아오이노소노(葵の園)·고토구)가 개설되었다.
- 4 고토구의 실태조사보고에 따른 맨션건설 시기구분(권말자료 1)에서는 1975년부터 86년까지를 「민간맨션 융성기」라고 하고 있지만 [고토구 2009], 나는 이 시기의 변화를 실감하지 못했다. 이후에도 만안지구의 입체지역 개발이 진행되어 고토구 인구는 현재 거의 50만 명에 육박한다. 또 그림 1에서 보듯이 도도부현으로 구분된 건축방식별 비율에서 도쿄도가 돌출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 5 이 글에서 ‘평준화’란 프란세스 무노스가 urbanization + bana(평범하고 속된)로 만든 조어 urbanalization(원어는 스페인어), 일본어로는 ‘속도시화(俗都市化)’로 번역된 개념을 의식해서 쓰였다 [무노스 2013]. 이 용어의 함의는 혼란 것이 된다는 뜻이다.
- 6 다이쇼 말년 이후에 갑자기 빈발하게 된 이른바 친자동반자살(親子心中)을 한일 비교의 시점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와모토 1993, 2006 등]. 최근에는 일본에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간병살인(介護殺人)’이나 ‘고령자동반자살(老老心中)’에 대해 한국의 유사한 현상과 비교연구를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간병살인을 뜻하는 ‘개호살인’이라는 표현이 1985년에는 등장했지만, 부모살해가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졌던 한국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4년 1월에 발생한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의 아버지(57세)가 조부(84세), 조모(79세)와 함께 ‘동반자살’한 사건은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여론을 환기시켰고 이 절대적인 규범은 그 이후에도 흔들리고 있다.
- 7 학문영역의 구별을 따지는 것이 그다지 상책이라 할 수는 없지만 다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사회학에서도 생활사(라이프 히스토리)를 구사하는 기시 마사히코(岸政彦)가 특히 “보통 인생의 기록”을 주장한 『거리의 인생』은 제명에 “우리가

공상으로 그려보는 세계보다 숨겨진 현실이 훨씬 깊이가 있다” 고 한 야나기타(柳田)의 『산의 인생』의 한 구절을 인용했다 [기시 2014]. 매우 뛰어난 작품이지만, 구술(語)을 “인생의 단편집” 으로부터만 아니라 “보편적인 이야기(物語)” 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민속학과의 미묘한 관점의 차이가 엿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쓰인 “보통 인생” 과 마찬가지로 사토 고지(2002b)의 저작에도 “보통 생활”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이 글에서 사용하는 ‘보통 사람들’도 표준적, 대표적이라는 뜻이 아니다.

- 8 이토 노리아(伊藤徳也)는 저우 쉐런(周作人)의 특징이 ‘생활예술’의 주제로서 ‘범인(凡人)’을 발견한 데 있다고 파악하였다 [2012].
- 9 이하에서 중국의 인명 및 지명은 관례적인 일본어 읽기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적용되고 있는 현지어에 가까운 ‘발음표기’로 한다. 중국어 사성을 무시한 표기법이지만, 일본어 읽기로는 중국 인명의 성(姓)인 高, 戸, 黄, 洪, 孔, 江 등은 모두 ‘코우(コウ)’가 되기 때문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앞으로의 국제교류를 고려할 때 이러한 혼동은 피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어발음에 가깝게 표기하기로 한다.
- 10 남근우에 따르면 예를 들어 송석하는 1938년 『동아일보』에 연재된 「민속에서 풍속으로」에서 “과거의 잔존물”인 민속에 대해 “풍속이란…현대의 호흡할 만한 현대의 것”이라고 하며 새로운 풍속으로 재생시킬 만한 “건전한 오락”을 부활시켜 “국민의 정서적 만족을 채워주”고 “情操的 함양을 꾀하”자고 주장했다 [남 2013:102].
- 11 도로시 노이즈(Dorothy Noyes)는 오늘날 세대계층적인 ‘문화’보다도 ‘상황’에 의한 구석이 새로운 문화창조를 이끌어낸다고 논하였는데, 이번 심포지엄의 과제설정에는 이에 대한 재검증의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노이즈 2011:8].
- 12 이 문장의 뒤를 이어 야나기타는 “이 점이 향후에 어떻게든 고민되어야 할 문제”라고 하면서 과제로 남겼다 [야나기타 1993:6].
- 13 일본에서는 이후 1980년부터는 파루코(バルコ)의 썩크탱크인 ‘ACROSS’ 편집실이, 1992년부터는 하쿠호도(博報堂)의 생활종합연구소가 마케팅의 관점에서 ‘생활정점조사(生活定點調査)’를 이어오고 있다.
- 14 1975년 첫 번째 조사에서는 140 가정에 조사표를 배포하고 88 가정에서 사진촬영을 하였다. 이 외에도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독일(뉘셀도르프)의 각 5 세대와의 국제비교도 이루어졌으며 계층 등에 따른 평균적인 이미지(像) 추출이 그 목적이었다.
- 15 또 사토 씨는 “이미 공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은 사회의 코스모로지(cosmology)가 반영되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품으로 구입하는 것.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들은 기껏해야 물건을 통해 자신다움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조사에서는 공간이라는 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물건에 주목했습니다. 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동시에 나에게 삶의 보람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라고도 설명하였다 [사토 2002b:1].
- 16 푸코는 실제하지 않는 유토피아(일본어로는 ‘非在郷’)에 대해 권력으로 질서지어진 현실공간을 보다 나은 이상(理想)으로 바꾸어 만드는 사람들의 실천을 헤테로토피아라 명명했다. 이에 관해서는 줄고 [이와모토 2013]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 17 초기부터 살림살이 조사를 주도했던 국립민속박물관 관장 천진기 씨는 이 조사가 오사카 민박의 서울스타일 특별전뿐만 아니라 다니엘 밀러 [Miller (ed.) 1998] 등에 의한 새로운 인류학적 물질문화연구의 영향 또한 많이 받으면서 독자적으로 구성된 것임을 강조하였다 (2014년 5월 7일 인터뷰).
- 18 심포지엄 토론에서는 일본의 세대공간 설계에서 최근 맨션의 경우에도 ‘속복도(中廊下)’가 당연한 것으로 취급된다는 언급이 있었다. 이러한 당연시되는 의문을 오쓰키 씨가 예로 든 것이었는데, 가족이 모이는 리빙룸을 거치지 않고 속복도를 통해 직접 각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는 가족의 ‘일상’ 또한 규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족에게조차 폐를 끼치고 싶어 하지 않는 의식의 발생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 19 ‘원앙금침’이라 하여 부부가 같은 이불과 베개를 쓰고 동침하는 관행이 있던 한국에서는 지금도 당연한 습관처럼 부부가 더블베드를 쓰는 것이 자명시된다. 일본에서는 조사 수치의 차이는 있으나 ‘부부별침’과 ‘이실이상(異室異床)’이 과반수를 이뤄 화제가 된 바 있다.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된 시니어컴의 국제비교(2004)에 따르면 부부별침은 일본 40%에 대해 한국도 19%를 기록 [고바야시 2013:18] 하여 한국에도 여러 규범코드가 병존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실제로 2002년 서울스타일에 등장했던 아파트 사례에서는 거실의 피아노 위쪽 벽에 암갈색으로 변한 할아버지 사진이, 텔레비전 오른쪽 위 벽에는 할머니를 중심으로 한 큰 가족사진이 걸려 있다 [국립민속박물관 2002:35]. 단 주의해야 할 것은 피아노 위쪽의 사진은 유명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사진 속 인물이 모자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진은 장식적 요소가 강한 인물사진이라 여겨진다. 또 텔레비전 쪽 가족사진과의 대조를 통해 이 사례 역시 산자와 죽은자의 공간분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 20 한국에서는 하찮은 것에 구애되어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이나 학문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도 경계하는 경향이 강하다. 중국의 왕 지에윈 씨의 발표에서는 배란단을 절명한 불필요한 물건과 주부의 미덕 사이의 관계가 지적되었다.
- 21 아루가 기자에몬(有賀喜左衛門)이 논하는 생활론의 핵심은 “생활의식”에 있는데, 예를들어 아루가는 “겉보기에는 달라 보이는 기아(捨子), 고용살이, 매신, 영아살해(まびくこと), 수양자녀(里子) 등과 같은 일들이 그 당사자의 생활의식을 찾아 올라가보면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아루가 1969:347]고 말하면서 그 인식을 밝힌 바 있다. 간병중의 동반자살의 경우에도 평소의 일상이 바탕이 되어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 1. 1970년대 이후 맨션건설의 변화



(권말자료) 고토구 맨션건설의 변화

시대구분	기간맨션 융성기	주택공급 침체기	초고층맨션 융성기	임해지역 본격개발기
경제정세	· 제 1차 오일쇼크 (1974) · 제 2차 오일쇼크 (1979)	· 플라자합의 (1985) 로 인한 거품경기와 그 붕괴	· 경제불황과 경제의 글로벌화, 산업구조재편의 가속	· 금융구조개혁에 따른 경기회복, 부동산투자기열 · 경기의 급변
주택정책 동향	· 거주수준, 주택경수준의 도입 · 대도시지역에서 양질의 주택공급	· 성장기 가족세대용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	· 도심거주축진 (규제완화) · 주택성능 도입, 기존주택의 내진화 촉진	· 분양맨션의 관리, 재건축 대책 · 저출산고령사회를 뒷받침할 거주환경정책
고토구 인 구동향	· 도쿄도 내에서의 핵가족세대 진입초과로 인한 인구증가	· 다른 현으로의 성장기 가족세대 전출초과로 인한 인구감소	· 젊은 단신세대, 성장기 가족세대 진입초과로 인한 인구증가	· 젊은 단신세대, 핵가족세대 진입초과로 인한 인구증가
고토구 주택 건설 동향	· 민간분양맨션의 건설증가 · 본인소유집을 중심으로 한 세대공간 규모의 확대	· 지가 등의 급등 · 급락 · 사무실 · 점포 등의 건설증가와 분양맨션공급의 침체 · 임대주택공급의 점유율 확대	· 초고층맨션의 건설증가 · 개발규모의 대형화 ·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 시작	· 지가하락 멈춤 · 임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초고층 맨션 개발의 본격화 · 원룸 맨션의 공급확대

( 주 ) 이 조사에서 '성장기 가족세대'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핵가족세대,' '성숙기 가족세대'는 '18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핵가족세대'를 뜻한다.

출전) 고토구, 2009. 『고토구 맨션 실태조사 ( 개요판 )』 고토구 도시정비부, 2쪽.